

대림 제3주일

기도서 P. 218 C해

- 제1독서(소 포 3, 14-18)
- 제2독서(필 립 4, 4-7)
- 복 음(루 가 3, 10-18)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봉 희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①2935)

강론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 궁 렬 신부

한 해가 저물어간다. 70년대가 종말을 고하고 80년대
가 막이 오르려 한다. 세월이라는 실오라기로 인간은 역
사를 엮어간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우리 민족이 형성한
역사도 다양하다. 일제의 식민통치, 해방, 정부수립,
6·25동란, 4·19, 5·16. 이러한 역사적 변천을 겪어 오면
서도 그 어느 하나라도 진정한 평가가 정립되지 못한 채
또 다른 역사를 꾸며가고 있다. 한 역사의 전환 순간에
우리 민족은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를 진지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일제 36년간이란 긴 세월동안 동족을 팔아 정권에 아
부하며 치부해 온 자들이 해방이 되어서도 버젓이 목숨
을 부치고 실상가상으로 자유당 정권에 아부하여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부를 축적하였다. 해방이 되었으면 민
족의 배반자들은 의당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했
으리라. 2차대전 당시 불탄서가 3년동안 독일의 수중에
들어갔다가 해방이 되자 불탄서 국민은 3만여명의 반역
자들을 처형시켰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앞잡이들을 얼
마나 처형시켰나? 단 한 사람도 처형된 자가 없다. 불
탄서인들은 야만인들이어서 그랬을까?

이런 풍토 속에서는 진리, 사랑, 정의를 가르치는 예
수의 말씀이 배지값이 되고 말것이다. 피땀흘려 일한 댓
가가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고 정성들여 가꾼 소출들이
판매되지 못하여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불의하게 치
부해서 배를 득득 굶어가며 조롱조로 쳐다보는 이들 사
이에 전 민중들이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모실 마음의 여
유가 있을까? 그들이 울부짖는 외침은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이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은 한
개인의 회심을 넘어 민족 전체의 회개이다. 민족의 배반
자들을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용기와 썩
은 살점을 도려내는 용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풍
토가 진리, 사랑, 정의로 바뀔 때만이 나도 너도 나란히
주님을 영원히 뵈을 수 있을 것이다.

(노송동 전주교회 보좌신부)



천심으로 살자!

성모 마리아의 원죄(原罪)없으신 잉태를 기념하는
12월8일은 정녕 기쁜날이었다. 어느 신문의 표현처럼,
4년 7개월이나 계속되던 “답답한 침묵” 긴급조치 9호가
깨트려진 날이었다.

긴급조치는 그 상황이 국가존립이나 헌법질서를 위태
롭게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만 발동된다. 정부는 그 긴
시간동안에 “북괴의 침략야욕의 상존(尙存)”을 내세워
국민의 여망을 강그리 무시해 버리고 긴급조치 9호의 타
당성을 고집해왔다. 그러나, “북괴의 남침야욕은 엄연히
상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26사태를 계기로 하여
그렇게도 서술이 피터던 긴급조치가 너무나 어이없게 무
너져 버린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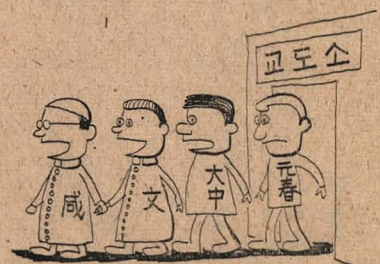
역사는, 언젠가는, 가리워졌던 진리들을 밝은 태양아
래 날날이 그 참모습을 밝혀준다. 제나라의 일들을 외신
(外信)을 통해서나 짐작할 수 있었던 어제가 다시 되풀
이되어서는 안된다. 지성의 보루인 대학교의 총학장들이
부끄러웠던 어제의 잘못에 사과 한마디 없이, 쫓아냈던
학생과 교수들의 복교와 복직을 부끄러움도 못느끼며
(?) 이야기하는 슬픈 역사가 또다시 있어서도 안된다.

안보는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안보이어야 한
다.

모두들 순수한 마음으로 살자. 오늘날 바라보며 살지
말자. 먼 내일을 기약하며 살자. 정치인과 경제인은 이
제 알파한 술수의 옷을 벗어 버리자. 그 알파한 옷이 진
리의 태양아래 녹아내릴때 당신의 추한 물골이 당신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한다.

신앙인들인 우리도 사심을 거두고 하느님의 뜻을 찾기
에 더욱 애쓰자. 성모님이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축일에
우리 민족은 해방의 기쁨을 얻었고, 무열시대 축일에도
또 기쁨을 만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숲 정 이 산책



「事必歸正」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감사합니다!

—문 정현 신부 석방

문정현 신부의 두번째 피정(?)이 끝났다. 금년 7월 26일에 재수감되어 12월 8일에 다시 교구에 돌아오기까지 135일. —문신부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사제단, 가족들을 멀리하고 1.3평의 제한된 공간 안에서 하느님과 그를 기억하는 우리들과 신앙 안에서 만남을 계속해왔다.

1976년 3월 1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소위 「3.1절 기도회 사건」으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 하여 3년형을 선고받은 문신부는, 지난 77년 설날 그믐날 형집행정지로 우리와 함께 지냈었다. 금년에 재수감되었던 문신부가 긴급조치 9호의 폐지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날은 놀라움게도 성모님의 원죄없이 잉태를 축하하는 축일이었다.

문신부의 출감 소식이 전해진 12월 7일, 교구에서는 사목국장 김봉희 신부와 동창인 김정원, 이수현 신부, 아우인 문규현 신부와 어머니(장수산나), 형(문요셉)등 가족과, 파티마 본당 교우들이 홍성교도소까지 차를 몰았다. 8일 새벽 5시에 홍성을 출발했다는 소식에 접한 교구 평협에서는 조성호 회장과 사무국장, 해성교교 이 상용 교장과 김성원 교장, 김영진 서무과장, 중앙성당 김병구 회장, 가톨릭센터 총무와 사무장 등이 호남교구도로 전주 톨케이트에 영접을 나갔다. 10시 15분경 교구청에 도착한 문신부는 2백여명의 교구내 성직자와 수도자, 평협 신도들의 박수속에 주교님을 뵈었다.

갑작스럽게 가톨릭센터 회의실에는 간단한 환영식장이 마련되었다.

환영의 말씀을 하신 김재덕 주교님은 먼저 하느님께 감사드리자며, 문신부의 수고를 위로하셨다. 김주교님은 “오늘의 이 기쁨은 어느 한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이 나라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며, “문신부님의 우고동안 뜨거운 기도와 열려를 해준 교구내 모든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사랑안에 일치하며 보여준 형제애”에 감사한다고 치하했다.

답사에 나선 문신부는 “열려와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새로운 세상 창조에 다같이 매진하자”고 호소했다. (문신부의 인사말씀은 3면에)

- 일치 76. 3. 1...3.1절 기도회
- 3. 2...문신부, 당국에 의해 연행
- 8. 3...징역 7년, 자격정지 7년구형(1십)
- 8. 14...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선고(1십)
- 12. 29...징역3년, 자격정지3년선고(항소심)
- 77. 3. 22...상고집대로 형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 77. 12. 31...형집행정지로 670일만에 석방
- 79. 7. 26...형집행정지 취소로 재수감
- 79. 12. 8...긴급조치 폐지로 135일만에 석방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께 전문·제대장식
유명장사 직접지도 꽃꽂이 회원모집
-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국장 골목 전화 ⑥ 0921

범 띠도(덕배)·이 마리아

□군중신부의 편지□



목주의 기도 3,406단 바쳤습니다

정 승 현 신부

주안에 안녕하십니까?

김장이랑 월동준비는 다 하셨는지요? 이곳 부대에는 다행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전에, 월동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부대의 월동준비는 대단히 큰 일입니다. 연료도 마련하고 무우도 묻고 김장도 해야하지만, 추위속에서도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방의 어느 중대에서 사병들이 먹는 김장김치를 먹어보았는데, 밤도 들고 굴도 들어 있어서, 옛날 10년전에 사병으로 근무하던 때와 비교가 되더군요.

본격적으로 추워지기는 했지만, 아직 눈은 쌓이지 않았습다. 그래도 장병들은 추위속에서 계속되는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겠다는 일념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로사리오 1만단 바치기 운동은 계속되고 있고 성과도 비교적 좋습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미약하지만(지난 주까지 3,406단), 기도와 훈련을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기쁨을 알려주는 병사들을 만날때 기쁨과 감사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해화동성당에서 위문을 오시어 큰 기쁨을 안겨주신 것도 로사리오 기도 덕분으로 압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위문이었요, 위문의 성과였습니다.

전번 신부님은 이곳에 2년 계시면서 121명의 영세자를 내었습니다. 교구의 아무리 큰 본당도 1년에 남자 청년을 60명이상 입교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학교에서도 1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비신교를 계속 베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군중업무는 무척 중요하고 보람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계속적인 기도와 도움을 삼가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양면의 크신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좋은 손가락 목주들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의외의 호응에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귀한마음씨에 풍성히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은총과 준비의 시기인 이 대림절을 기록하고 부지런하게 보내시어 기본 성탄을 맞이하시기 바라며 추위에 따뜻한 마음 간직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줄입니다.

주안에 안녕히 계시시오. 1979년 대림 첫주에

□국군장병에게 위문품을 보냅니다!

하느님 말씀을 전할 황금어장에서 에쓰시는 군중신부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을 교구청에 보내주시면, 군중사제(교경훈·성민호·양재철·정승현·박종신·박종근·염기봉 신부)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성탄 영세자 선물은

현양대회·기쁨 가락지 목주로

성탄 선물도 현양대회 기쁨 가락지 목주로

연락처 : 교구청 내 평협사무실 T. ⑥2935

□ 인사말씀 □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 정 현 신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느님과, 저를 위해 열려와 기도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77년말에 제 뜻과는 달리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난번과는 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오늘의 제처지가 부담스러움을 느낍니다.

8백여일의 수감생활로 제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차들맹이가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어느때 어느곳에서나 하느님의 굳센 투사로서 더욱 열심히 싸울 준비가 굳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제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뜻에 맞게 영위되게 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민중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은 새출발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썩은것은 부수고, 부정에는 과감히 부딪쳐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에 힘입어 저는 사제로서 더욱 단련되었고, 저의 건강도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더욱 몸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우선 간단한 인사에 가름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더욱 건강하시고, 하느님안에 평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국 추수 감사제에 참여하고—

12일 오후 대전 대흥동 성당 안팎엔 가무잡잡한 사람들로 잔뜩 북볏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찌들고 깃눌렀던 농민 형제, 투사들. 유난히도 쌀쌀했던 날씨였지만 출잡아 1500여명이나 될 이들의 열기가 온통 주교좌를 술렁이게 하는성 싶었다.

들어서자 첫 눈에 잡히는 건 어느대회에서 보듯 젊잖은 벼타이 신사라곤 손뽀기가 힘들 정도, 허름한 잠바에 운동화 차림새들이 한결 가난한 사람들, 없는 자들의 대회색을 질게 풍겨왔다. 하지만, 강렬하기 이를데 없던 회장님의 인사와 보리밥 깎두기의 힘으로 가꾼 농산물들이 제 값 한번 받아보지 못한 지난 날, 농정을 개탄하시며 한 맺힌 농민 안(心)을 쓰다듬어 주신 황주교님 강론엔 열렬한 박수갈채가 그칠줄을 몰랐다. 이동호 총재님의 이색적인 감사, 위로말씀도 장내 기운을 새롭게 덜혀줬고.

뭇보다도 그러나, 이들의 고달픈 생, 갈라진 뽕치손들이 그래도 축복과 은혜의 산물이라 한 아른색 제단 앞에 바친 갖가지 특산물의 행렬엔 감사보다 더한 몽클함이 가슴을 때웠다. 이 고운 자들을 그 어느 누구 있어 또 꾀박하고 착취하려 들 것인가? 저주를 받을진저—

두시간여에 걸친 미사와 쌀 생산비 조사보고가 끝난 4시30분부터는 덤덤한 막걸리 잔치가 벌어졌다. 이래저래 또 제물된 값싼 돼지머리 곱창, 시래깃 국물로 오랫동안의 회포 맺힌 사연 한꺼번에 풀면서 재회의 기쁨을 나누던 선한 그 순간이 마냥 흐뭇하기만 하다. 안녕들 하시라, 농민 형제들이여!(요한 記)

로알백화점 내
(삼화약국 옆)

백양 메리야스 직매점

채 순심(아네스)

□ 개업안내

테이프·레코드·카세트·DP&E

숲 정 이 음악사

홍지서림 남쪽 편
전 대 수(베드로)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교우님들의 건강관리 상담 세종당한약방

김 남 수(벨라도)
전주시 풍남동 3가 35의9
(은행나무 사거리)
전화 ② 2 2 7 7

□ 교우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 신속 배달

아파트 정육점

인후1동 인후아파트
전화 3-0612
최창욱(가스발)

□ 타올, 보자기, 족석 인쇄
※ 교우여러분들의 협조바랍니다

송월타올

(남문영업부)
전주시 전동 3가 9
(전북은행 남부지점)
전화 ② 2849·③ 5612
엄관설(베드로)

*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작곡 시계)
주 이 창 수(바오로)
전주 남문 열
전화 ② 8 1 8 8 (자 ②0369)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 국군 장병들에게 정성어린 위문품을 보냅니다
- 1.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정기총회 및 졸업생 환송회...12월 27일(목) 오후 2시, 가톨릭 대학생회관 참가비-재학생 1,000원
- 2. 레이오 마리에 꼬미시움 월례회...16일(일) 오후 2시, 전동성당에서
- 3. 순정여성당 바자회...17일(월)~19일(수)까지, 교우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 순정이를 위한 좋은 의견, 많이 보내 주세요...알고 싶은 교리나 교회상식 질문도 받습니다
- ☐ 신년교례회 참가 희망자는 사무장님께 미리 접수해 주세요...80년 1월 1일 오전 11시, 가톨릭센터 회비-2,000원
- ☐ 군인들을 위한 목주성금...파티마 장용근(1만원), 세시리아(5백원), 이교성(5천원)
- ※ 전주 해성고등학교 제 2회 음악발표회...19일(수) 낮 3시, 밤 7시30분, 전주시민문화관

(중앙)

전화 ③651 3874

주임	신부	서	용	복
보좌	신부	왕	수	해
보좌	신부	정	태	현
사도	회장	이	복	성

1. 축 영세 :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 성모회 : 16일(일) 공식미사 후
 3. 공소판공 : 16일(일) 오후 2시(간중공소) 18일(화) 오전 10시(용중공소)
 4. 환자영성체 : 18일(화) 오후 3시부터
 5. 분당 판공성사 일정 : (별지 참조 바람)
 - 19일(수) : 금암동·인후동
 - 20일(목) : 진부동·경월동
 - 21일(금) : 서노송동·중노송동·태평동
 - 22일(토) : 교사동·학생·기타
 - ※ 교백성사 시간 : 오후 3시-8시
 6. 교무금(80년도)은 50% 인상됩니다
- ☐ 지난주 봉헌금 : 269,327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나	중	월
사도	회장	박	춘	근

1. 판공성사 일정 : 유아동-17일, 인후동-18일~19일 중노2가-20일, 중노1가-21일, 남노-22일, 판공성사는 빠짐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2. 성탄전야제 : 각 단계 회장님은 성탄전야 행사계획서를 속히 제출하세요
 3. 신중조합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4.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 회계년도 말입니다 아직 교무금을 완납 못하신분은 속히 완납하세요
- ☐ 지난주 봉헌금 : 152,416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전	복	복
사도	회장	유	제	상

1. 판공일정 : 17·18-금암동·송진동, 19·20일-덕진동·팔복동, 직장·학생-22·23일 ※ 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 저녁 7시30분-8시30분
 2. 판공때 세대주 사진 꼭 지참합니다
 3. 밀린 봉헌금 납부주일 봉헌금 납부하여 어려움을 다함께 극복합니다
 4. 주일학교 어린이교리 : 일요일 오후 2시, 미사-3시
 5. 젊은이 성가연습 : 학생, 직장인, 35세미만
 6. 성탄 특별교리 : 16일-22일 저녁 7시30분부터 시작
 7. 보좌신부님 영명축일 : 12월 27일 기도해 주세요
- ☐ 지난주 봉헌금 : 477,70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보좌	신부	박	성	팔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세례식 : 24일 오전 10시미사(유아세례 겸함) 대부모와 같이 오세요
2. 대학생회 창설 : 30일 저녁미사 후 (대학생 전원 참석 바람)
3. 사도회장 선출 및 성탄행사 준비 : 오늘 공식미사 후 사도회 임원, 반회장님, 진심단체 임원(성우회·부녀회·성가대·애령회·Re·J,O,C·학생회·교리교사)은 꼭 참석 바랍니다
4. 시상 : 어린이 매일미사 참례와 반회장님들 공로시상(25일 성탄 자시미사)
5. 미수린 봉헌금 완납 정리하시고 : 즐거운 성탄을 맞이합니다
6. 특별헌금 : 계사관 설치 기증-이요비노형제(15만원) 특별 감사헌금-홍마리아 자매(3만원)

※ 축 성탄 : 제대초, 제대꽃 봉헌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45,855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한	형	수

1. 부녀주일 : 공식미사 후
 2. 성탄 불우이웃돕기 운동 : 많은 성금 부탁드립니다
 3. 분당 판공일정 : 18일-1,2,3,4만, 19일-5,6,7,8만 20일-9,10,11,12만, 21일-13만·기타만 22일-학생회·주일학교
 4. 반장님 회의 : 공식미사 후
 5. 애령회 총회 : 23일 공식미사 후
- ☐ 지난주 봉헌금 : 87,140원

(순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광	도

1. 성모회 월례회 : 12월 16일
 2. 누깰다 부녀회 바자회 : 17일-19일 (성당 신축기금 마련) 형제 자매님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3. 판공성사는 분당에 와서 보세요
 4. 밀린 봉헌금 속히 납부바랍니다
 5. 신축기금 내주신분 : 유환옥(3만5천원), 박택규(10만원), 홍성표·이그레고리오·유안나·김소애(각 1만원), 우은순(1만5천원), 김숙자·백모니카·대구주마리아(각 3만원)
- ☐ 지난주 봉헌금 : 142,29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	엽
보좌	신부	김	기	수
사도	회장	유	석	중

1. 가을 판공성사 : 12월 21~24일까지
 2. 성사표 사무실에서 17일부터 발행
 3. 불우 이웃돕기 성미운동에 적극 협조 바람 (교도소·구민형제)
 4. 꼬미시움 월례회 : 오후 1시30분
 5. 성탄이 다가옵니다 자진해서 신실하신 봉헌금을 완납바랍니다
 6. 사도회 임원선출과 79년도 결산, 80년도 예산심의를 갖습니다 사도회 임원들과 신심단체장 등 반장 위촉받은 형제들 참석바랍니다(공식미사 후)
 7. 예비자 집중교리 : 17~20일까지
 8. 영세식 : 21일 저녁미사
 9. 주일학교 성탄행사 : 22일 7시
- ☐ 지난주 봉헌금 : 277,98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채	수	현

1. 영세식 : 오늘 오후 2시(유아세례도 있음) 대부·대모님 같이 참석해 주세요
 2. 영화상영 : 오늘 저녁 7시, 저녁미사는 6시에 있습니다
 3. 공소 판공일 : 18·19일
 4. 분당 판공일 : 21~23일, 시간 오전 9시~오후 5시30분 국교생·중·고생-토요일, 직장인-일요일
- ☐ 지난주 봉헌금 : 80,080원 어린이헌금 : 3,970원 교무금 : 93,000원